

벚꽃 날리는 사이에 맞이한 국회의원 선거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국민대 교수



햇볕이 따스해지는 요즘에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T.S 엘리엇의 말대로 땅속에 죽은 듯 있었던 모든 식물들이 움트고 올라와 생명력을 뿜어낸다. 목련, 싸리, 살구꽃, 벚꽃이 산천 곳곳에 피고 그 잎을 떨구고 날려 꽃바람을 맞는다. 한때는 벚꽃을 개념적으로 보고 사쿠라라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꽃을 꽃 자체로 보는 시대가 되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벚꽃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은 러시아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다.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벚꽃 동산이 있는 영지를 잃고 떠나는 귀족 남매의 모습과 자신의 일만 충직하게 해 온 늙은 하인이 모두가 떠난 집에 갇힌 채 죽어가는 모습이 씁쓸함을 남긴다. 활짝 폈던 벚꽃이 지면서 날리는 아름다움이 몽환적인 것 같기도 한 요즘은 산책하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는데 우리는 이 때에 선거를 치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시스

선거는 국민을 위해 진정한 일꾼을 뽑는다. 진실한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결정을 의뢰하는 것이다. 서울 의석수가 48석인데 이 중 더불어 민주당이 37석이고 국민의힘이 11석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한양) 500년 중심 구 도심지가 있는 강북과 1980년대 이후 개발된 강남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광주는 8석이 모두 더불어 민주당이고 전남도 10석 모두가 그렇다. 대구는

12석 모두 국민의힘이고 경북도 13석 모두 그렇다. 전국 지역구 254석 중에 161석이 더불어 민주당이고 90석이 국민의힘이다. 왜 숫자를 나열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늘 그랬듯 선거의 결과가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또 동서로 갈라진 모습으로 드러나 문제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와 같다면 범법자나 현재 기소중인 사람도 선택할 정도로 법적 절차와 규범을 무시하

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입법 활동에 신뢰가 사라진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앞에서 말한 <벚꽃 동산>은 20세기 초에 쓰인 안톤 체호프의 마지막 작품이다. 하얗게 날리는 벚꽃잎이 온 동산을 메울 때 오랫동안 그곳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 영지의 여주인 라네프스카야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벚꽃 동산을 경매에 넘겨야 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로빠힌이라는 농부의 아들은 벚나무를 베어 버리고 별장지를 만들면 수입을 올릴 수 있어 경제적 상황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또한 벚꽃 동산의 아름다운 농노의 고통의 댓가라고 말하는 대학생 가정교사 프로피모프와 그를 추종하는 여주인의 딸 아나, 그리고 언제나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늙은 파르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들은 러시아의 격변을 맞이하는 유형을 드러내지만 매 시대마다 등장하는 인물 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며 변화를 두려워해서 몰락할 때까지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사는 사람들, 시대를 누구보다 빨리 읽어 경제적 횡보를 걷는 사람들, 부당한 노동과 사유재산의 문제를 언

급하지만 정작 부유한 계층에 붙어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큰 틀로 보면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것인지 변화한 세상에 맞춰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착되지만 정답은 알 수 없다. 러시아는 프로피모프와 같은 인물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이끌었고 많은 격변을 겪었다. 아나와 같이 그를 추종하는 젊은 세력들이 많았으므로 혁명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현재의 전체주의로 치닫는 러시아다. 여주인공 라네프스카야는 프로피모프를 순수한 영혼으로 언급하지만 누군가를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그는 이미 순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로빠힌과 같은 인물일까? 벚꽃 동산의 나무를 베어 버리고 별장지를 만들면 당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곳의 모든 추억은 사라지고 그곳에 얽혀 살아왔던 사람들, 동물들도 사라질 것이다. 아름다운 벚꽃 동산도 지키고 사회의 변화에도 잘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매순간 균형잡힌 슬기로운 선택을 하면 좋겠다.

유월엔 무등으로 가세!

기고

이동순
조선대 교수



사람의 사람다움을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무등(無等)이다. 중심사계곡 언저리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던 세 사람의 삶이 그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곳이 무등이다. 무등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은 사람은 석야 최원순이다. 그는 일제의 압박을 온몸으로 맞서며 언어와 문자로 총독 정치는 약당 정치라고 호통을 쳤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언설로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무등에 들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동분서주하였다. 그가 무등에 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자리에 '인간사상선고서'를 내고 들어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오방

최흥종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송고함을 삶으로 보여준 그다. 나환우를 위해 나환우와 함께 예수처럼 살았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쳤다. 그가 무등을 향해서 무등에 든 것을 보면 무등은 생각없이 들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뜻이겠다.

그 자리에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민족혼의 복원을 위해 애썼던 사람 의재 허백련이 들었다. 목에 향을 담아 그 정신을 승화시킨 남종화, 학교를 세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길러낸 그가 차의 향기로 남아 있는 곳이 '춘설현'이다.

무등의 삶을 살다 무등을 두고 간 세 사람이 낸 길을 따라 우리도 무등에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무등(無等),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이자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시작점이다. 겹겹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있는, 아름다운 삶의 언어인 무등이 우리들의 숨결 속에 우리들의 몸속에 녹아들게 말이다. 몸과 마음에

무등이 들어앉아 의를 구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법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한 번이라도 불의 앞에 당당하고 깨끗하게 의를 쫓은 적이 있다면, 가난한 이에게 따뜻한 손길 내민 적이 있다면 무등에 들 자격이 있으니 모두 오시라. 삶의 향기와 깨끗한 정신이 숨 쉬고 있는 길을 따르다 보면 골목에서 골목으로 길을 놓아 무등에 닿은 숨결도 만날 수 있을테니까.

초록이 가득한 6월의 첫날과 둘째날, 석야·오방·의재 세 사람의 정신이 깃든 무등에서 '제2회 동구무등산인문축제'가 열린다. 우리의 일상과 멀리 있는 듯했던 세 인물의 삶과 정신을 만날 수 있다. 뜻을 세우고 기개와 의지로 앞서 길을 뚫은 선구자들을 만나러 어깨동무하고 무등으로 들어가자. 세상은 달라지고 변하며 진보하고 발전하듯이 우리가 한 생애 전부를 그들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닮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늘의 별들도 내려와 등불켜고 등을 토닥여주겠지.

기고 김형영 광성PVC사 대표·국민연금 수급자



내 노후 걱정, 내 자녀의 노후걱정

올해 2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20~50대 "젊은 시절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내면 자식에게 부모 부양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신반의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었다. 어느덧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고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하니,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쓸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나의 노후는 물론 더 나아가 내 자녀들의 노후까지 걱정이 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자식에 대해 끝없이 헌신하는 시대는 가고, 이제 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해야겠지만, 국민연금광주지역본부에서 연금 상담을 받다 보니 옆에서 아직 젊은 20대 취업준비생, 대학생, 군복무 중인 자식들의 노후 걱정에도 한 달에 9만원씩 연금보험료를 행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내고 싶다고 상담하는 지역 주민을 보면서 내 노후 걱정에 더해 자식 걱정도 하는 나를 보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났다.

요즘 주변 누구를 만나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젊은 시절 일할 때부터 이런 말을 안 듣고 살아온 적은 없는 걸 보니 돈 걱정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듯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고, 높은 집값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 후 자녀 학비와 학원비 등으로 생애 기간 내 항상 돈 걱정을 하고 살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이다. 특히, 내 주변을 보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헌신했던 삶을 배우면서도 현명하게 나의 노후도 걱정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듯하다. 개중에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

최근 노후를 준비하다 보니 상속이나 증여 관련 언론 기사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된다. 자녀의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해 물려줄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의 긴 앞날을 위해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짧은 기간이라도 내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니 만 18세가 되면 국민 누구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임의 가입이란 제도를 통해 월 9만원 이상을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안 돼 납부를 중단하더라도 30세 전후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예전에 냈던 국민연금과 연결이 되고 납부 개월 수가 꾸준히 누적되어 가입 월수가 120개월이 넘으면 납부한 금액과 가입기간을 따져서 결정된 연금을 준다고 한다.

자녀가 취업하거나 사업 등을 통해 스스로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로 바뀌고 가입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큰 재산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자녀가 스스로 소득 활동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매월 9만 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줘서 조금이라도 내 자녀의 노후가 별 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또한 어느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만 내 자녀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자녀의 미래에 대해 항상 노심초사하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